■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51-360.
http://doi.org/10.17948/kcs.2021..93.351

『동평위공유고(東平尉公遺稿)』 해제

김준형(金埈亨)*

1. 편저자사항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의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 시호는 익효(翼孝)이며,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낸 정태화의 아들로 태어나 좌의정을 지낸 정치화(鄭致和, 1609-1677)에게 입양되었다. 9살이 되던 1656년(효종 7)에 효종의 다섯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 1646-1668)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숙정공주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다. 하지만 1668년에 공주가 죽고, 1681년에는 외아들 정효선(鄭孝善)마저 잃었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부마가 재취해도 되는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부마는 재취를 맞을 수 없다'로 귀결되었다. 이로써 향후 부마는 재혼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지게 된 장본인이 되기도 했다.

부마로 있는 동안 네 임금[효종, 현종, 숙종, 경종]을 모셨고, 1670년, 1705년, 1711년에는 정사(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6년에는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를 증보・간행하였다. 저술로는 『공사문견록』, 『동평위유고(東平尉遺稿)』가 있다. 『경종실록(景宗實錄)』에는 정재륜에 대해 "器局이 俊偉하고 계책과 思慮가 있었으며 분에 넘치는 일체의 芬華한 풍습을 제거하

* 부산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

고 儉約을 힘써 숭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묘는 현재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에 숙정공주의 묘와 더불어 쌍묘(雙墓)로 조성되었다.

2. 구성 및 내용

『동평위공유고(東平尉公遺稿)』(필사본, 1책,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는 '동평위유고(東平尉遺稿)'와 '익효공고(翼孝公稿)'가 합철된 책이다. '동평위유고'에는 시(詩)·제문(祭文)·소차(疏箚)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써 넣은 반면, '익효공고'에는 별도의 유형 분류 없이 만사(挽詞)·제문(祭文)·소차(疏箚) 등을 순차적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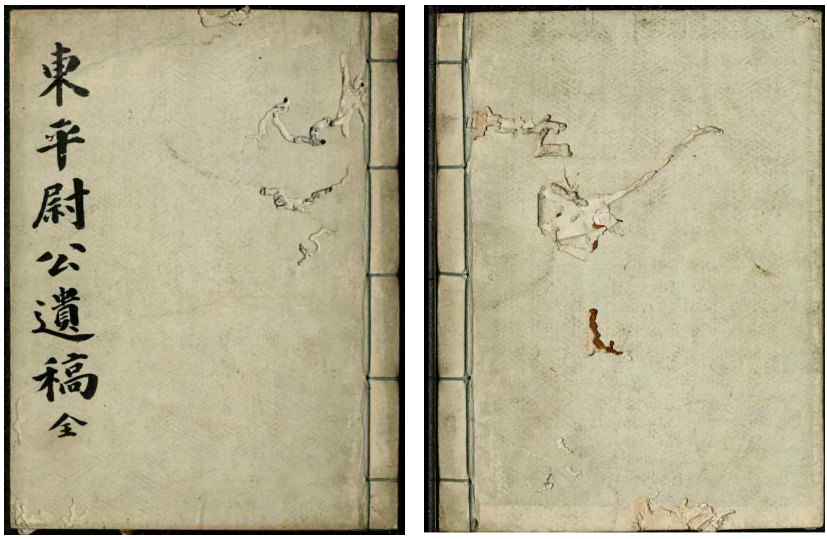
『동평위유고』에 수록된 시는 처음에 실린 「융무당갱진운(隆武堂賡進韻)」 한 편을[2] 제외하고, 모두 만사(挽詞)이다. 만사 뒤에는 고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였다.[3] 뒤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목 아래에 간략하게라도 정보를 제시해 놓았다.[4] 반면 『익효공고』의 만사는 운문이 아닌 산문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 양상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동평위공유고』에 실린 작품의 제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이 시는 戊寅[1698년] 重九日에 숙종이 융무당에 올라 宗臣, 儀賓, 府使 沈廷輔 형제를 불러 御饌을 내려 술을 마시게 한 일이 있었다. 이 날 연회가 끝난 뒤, 숙종은 참여한 동평위, 東平君 李杭(1660-1701), 沈廷輔, 沈廷協 등에게 賡進詩를 짓게 하였는데, 이 시는 이 때 지은 것이다.

3) 예컨대 두 번째 작품으로 실린 〈綾原大君遷葬挽〉의 경우, 작품 뒤에 雙行細註로 "綾原大君諱俌, 元宗第二子, 仁祖母弟也. 丙申卒, 壽五十九. 孝廟臨喪, 有五子, 曾孫甚多."라 하여 능원군 이보의 가계 및 효종이 臨喪하여 애통해 한 사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예컨대 〈權判書愈挽〉의 경우, 제목 아래 雙行細註로 "官禮判, 文衡耆社, 三子一女"라 하여 관직 경력과 자손 관계를 적시해 놓았다.



〈그림 1〉『동평위유고(東陽尉遺稿)』 앞 표지 및 뒤 표지

1) 『東陽尉遺稿』

(1) 詩

隆武堂賡進韻,(戊寅九月), 綾原大君遷葬挽(乙巳), 海寧君伋挽(庚午), 蓬川君鄭公之翼挽(辛未), 又, 靈豊君湜挽(壬午), 朗善君俁挽(癸酉), 張淮陽善沖挽, 安嬪慶州李氏挽, 鄭高陽昌徵室內洪氏挽(甲戌), 李右相行遠繼配韓氏挽, 樂善君潚挽(乙亥), 趙僉知挩挽(丙子), 李生必成挽, 淑徽公主挽, 禛嬪朴氏挽(癸未), 金正郎宇樑挽, 黃生道行挽, 權判書愈挽, 申生碩老挽, 具進士鼎相挽(乙酉), 李同知世翊挽, 李守萬徵再室李氏挽(丙戌), 金積城壽徵挽, 元兵使德徽挽, 李淳昌遇徽挽(丁亥), 趙海州持恒挽, 徐判書文裕挽, 黃生鐫挽(戊子), 吳抱川斗成挽, 又,[5] 鄭僉知行百挽(辛卯), 黃水使震文挽(壬辰), 瀛昌君沉挽, 任監司胤元挽, 尹判書世紀挽, 趙參判威明夫人李氏挽(癸巳), 洪領相明夏繼配尹夫人挽, 徐金川文淑挽(甲午), 鄭統制弘佐挽, 李統制昌肇挽, 臨陽君恒挽(乙未), 又,[6] 李東萊挽, 洪正萬遜挽, 朴監司紳挽, 鄭金川翊周挽, 金山君深挽, 李參贊彦綱挽

5) '又' 밑에 "한 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지은 것 같다[一首疑爲代人作]"는 기록이 있다.
6) 여기에도 위처럼 "一首疑爲代人作"이라 기록해 놓았다.

(丙申), 黃正郎應一挽, 洪監司重夏挽, 李林川湛挽, 黃判書欽夫人挽, 南參議迪明挽(丁酉), 李判府事濡夫人魚氏挽, 晉平君澤挽, 洪大諫禹寧挽, 淑嬪海州崔氏挽(戊戌), 儒川君淵挽, 李判書元楨遷葬挽(年條未攷), 黃判書欽夫人挽, 申生碩老挽, 鄭僉使之相挽(乙亥), 洪高城萬運挽.

(2) 祭文

祭內舅南公文, 祭季舅南公文(庚午).

(3) 疏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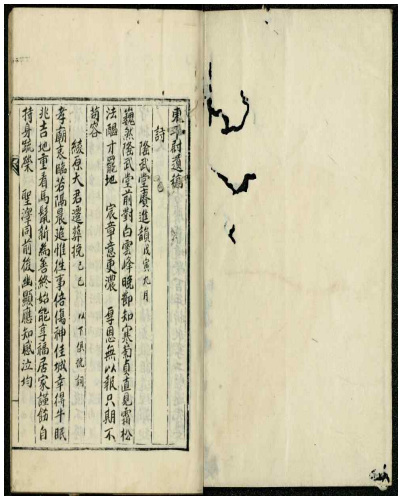
辭憼管疏(丁未七月), 又(十二月), 再疏, 請暇疏(辛酉三月), 辭摠管疏, 辭司導提調再疏, 三疏, 請變通司導寺役婢箚, 因社稷膰肉領進官推考事待罪疏, 啓覆時陳情徑出疏, 辭憼管疏, 差享時自陳疏(甲申正月), 請與摠府諸僚同罪疏, 憼管聯名疏(副憼管金鎭圭), 乞省掃疏(同年十月), 辭典牲提調書(丁酉), 辭凡署提調書(戊戌二月), 再疏, 罷敍後引咎疏(庚子七月), 進香時陳病疏(庚子).

2) 『翼孝公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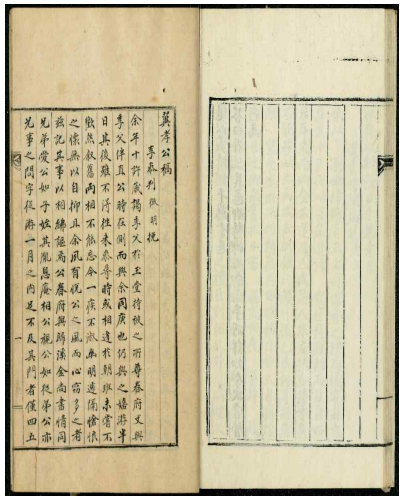
李參判徵明挽, 宗丈鄭公時翊挽, 李泰仁濂挽, 祭南生聖基文, 祭海昌尉吳泰周文, 祭金右相錫胄文(癸亥), 祭錦昌副尉朴泰定文(己巳), 辭第宅疏(己酉), 因南德源上言陳卞疏(甲子), 乞省掃疏, 待罪疏(辛酉五月), 陳私疏, 因錦川君疏陳事疏(乙卯九月), 赴燕時所懷疏(乙酉十月), 待罪疏(乙未九月),[7] 待罪疏(乙未九月),[8] 辭司導提調疏(乙丑), 請鑄司導提調印章箚(乙丑), 請繼後疏, 乙未燕行時先文別錄各邑作廳私通, 致祭文.[9]

---

7) 정재륜이 參覈使 宋正明의 狀을 得伏하고, 冬至兼謝恩使로 갔던 1711년 때의 실상을 아뢰는 疏임.
8) 乙未(1715년) 校理 宋成明이 근신한다던 동평위가 능침을 사사로이 배알한다는 論事疏에 대응하는 疏임.
9) 李眞儒, 柳儼, 尹行元이 분부를 받들어 지었다[製進]고 했음.



〈그림 2〉「동평위유고(東陽尉遺稿)」 본문



〈그림 3〉「효익공고(翼孝公稿)」

3. 서지적 가치

이 책은 30.6×20.4㎝의 한문 필사본 1책으로, 총 69장으로 되어 있다. 매면 10행, 매행 20자로 일정하다. 1권에 해당하는 35장까지는 동평위 정재륜의 '동평위유고(東平尉遺稿)'라 하였고, 2권이라 할 36장부터는 '익효공고(翼孝公稿)'라 하였다. 익효(翼孝)는 동평위의 시호(諡號)다. '동평위유고'와 '익효공고'는 필체도 다르다. 이로써 보면 후대의 누군가가 별도로 전하는 동평위의 글들을 모아 한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모은 두 책을 한데 묶어 표제를 '동평위공유고'라 하였다.

이 책 마지막에는 경종의 명을 받아 이진유(李眞儒), 류엄(柳儼), 윤행원(尹行元)이 쓴 치제문(致祭文)이 실려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은 모두 동평위의 것이다. 『동평위유고』와 『익효공고』에 실린 글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두 책에 공히 수록한 글은 없다. 두 책에 겹치는 글이 없다는 점에서, 두 책은 이본이 아닌 별개의 책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한 책이 먼저 완성된 이후에 누락된 작품을 별도로 모아 다시 한 책을 만들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수록된 글들이 만사와 제문과 소차 등 한정된 장르에 집중케 했다는 것은 단순한 유고나 문집 외에 특정한 목적이 가미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특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서발문이 없어 확언할 수 없지만, 마치 동평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얼마간 있지 않은가 싶다. 실제 다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는 퍽 자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책은 동평위 문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높인다.

4. 내용적 가치

이 책에는 만사(挽詞)·제문(祭文)·소차(疏箚)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만사의 체제가 흥미롭다. 『동평위유고』에는 만사가 62편, 『익효공고』에는 3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둘의 체제가 다르다. 전자는 일반적인 만사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만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동평위유고』에서는 작품을 지은 연도와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만사 말미나 제목 아래에 간략히 제시한다. 예컨대 「명빈박씨만(禋嬪朴氏挽)」을 보면, 제목 아래 '癸未'라 하여 1703년에 썼음을 밝혔다. 그리고 작품 후미에는 "박씨는 당저[숙종]의 후궁이다. 아들이 있는데, 지금 다섯 살이다. 상께서 이름을 '昭'으로 하도록 명하고, '훤'으로 읽도록 했다. 연령군(延齡君)에 봉하였다. 제주(題主)함에 미쳐서는 제사를 받드는 방제(旁題)로 삼도록 했다."라고[10] 하여 명빈(禋嬪)에 대한 정보와 제사 양상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또한 이 작품 바로 앞에 실린 「숙휘공주만(淑徽公主挽)」은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대저택 건축 역사(役事)의 주역이기도 한 숙휘공주의 만사다. 이 작품 뒤에도 "공주는 효종의 셋째 딸이다.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에게 하가하였다. 인평위가 죽고 아들 또한 죽자 공주는 슬픔에 병이 되었다. 4월에 병이 심해졌다가 6월에 조금 차도를 보이자, 상이 즐거워 노래한 시를 직

10) 朴氏當宁後宮, 有子方五歲. 上命名昭, 音暄. 封延齡君. 及題主時, 俾旁題.

접 적어 보냈다. 그러나 10월에 죽자 상은 친히 제문을 지어 여관(女官)에게 보내 제사 지내도록 했다. 인평위의 장지는 곧 고양 옛 고을로 현종께서 내려주신 곳이다."라고[11] 하여 군신의 관계를 떠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애틋한 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평위유고』에는 이처럼 만사 62편 모두에 대략적인 정보를 제시해 놓았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단지 만시가 지닌 미의식인 면을 넘어서서 당시 문화적 환경 및 인물들 간의 교유 양상을 엿보는 데에도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익효공고』에 실린 만사는 기존에 보던 것과 상당히 다른 형식을 취한다. 운문이 아닌 산문으로 지은 것인데, 이런 양식의 만사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예컨대 첫 작품으로 제시된 「이참판징명만(李參判徵明挽)」은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이징명(李徵明, 1648-1699)의 만사다.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을 보자.

> 내 나이 10세 즈음에 옥당 숙직하는 곳에 계부를 뵈러 갔는데, 춘장과 계부께서 함께 숙직을 하고 계셨지. 공은 그때 곁에 있었는데, 나와 同庚이었다. 이에 함께 한나절을 놀았다. 그 후로는 왕래하며 서로 찾지 못하고 이따금 조정에서 만나긴 했지만, (…)[12]

만사라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시작이다. 운문이 아닌 산문 형식을 취한 것은 물론이고, 마치 전(傳)의 행적부 한 대목을 보는 것처럼 장르의 본질이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분명한 만사일 수밖에 없음은 다음과 같은 대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 내가 예부터 공의 풍모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좋게 여긴 것이 많았는데, 이에 그 일을 기록함으로써 상여를 끌며 부르는 노래로 세우고자 하노라.[13]

---

11) 公主孝廟三女也. 下嫁寅平尉鄭公齊賢, 寅平卒逝, 一男長而又逝, 公主悲哀成疾, 四月病甚, 六月上聞疾少差, 製述喜詩, 手寫以賜. 十月卒, 上親祭文, 遣女官以祭之. 寅平葬地, 卽高陽故郡, 顯廟所賜也.

12) 余年十許歲, 謁季父於玉堂地被之所, 尊春府丈與季父伴直. 公時在側, 而與余同庚也. 仍與之嬉游半日, 其後雖不得往來參尋. 時或相逢於朝班

13) 余夙有悅公之風, 而心窃多之者, 玆記其事, 以相紼謳焉.

불구(紼謳)라는 말이 들어간 이상, 이 작품을 만사로 보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 왜 이렇게 산문을 썼는가? 마지막 대목을 보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 마음가짐과 행사가 이러했음을 알 수 없는지라. 이에 감히 俚語로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문장이 졸렬하더라도 혐의치 마시기를.14)

운문으로는 이징명의 마음가짐과 행사를 모두 담아낼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산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동평위는 퍽 보기 드물면서도 독특한 형식의 만사를 썼던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글쓰기는 이어진 「종장정공시익만(宗丈鄭公時翊挽)」과 「이태인렴만(李泰仁濂挽)」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태인렴만」은 마치 소설 한 편을 읽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수진방(壽進坊)에 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아들의 친구 이렴을 함께 가르치던 일. 그러다 아들이 18세에 죽자, 이렴을 아들처럼 보면서 지켜보던 일. 이후 이렴이 남읍(南邑) 수령으로 갈 때, 동평위가 고을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 이렴이 일이 있어 서울로 잠시 돌아왔을 때 불길한 마음에 신신당부하던 일 등은 만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이런 점만으로도 『익효공고』에 실린 만사는 우리 문학사에서 퍽 주목해야 할 작품임에 틀림없다.

제문은 『동평위유고』에는 두 편, 『익효공고』에는 네 편이 실려 있다. 『동평위유고』에 실린 제문은 정재륜의 외삼촌인 의령 남씨 남두장(南斗長, 1613-1689)과 남두징(南斗徵, 1617-1690)을 애도한 것이다. 『익효공고』에 실린 네 편은 표종질(表從侄)인 남성기(南聖基), 동평위와 교유했던 김석주(金錫胄, 1634-1684), 그리고 자신처럼 의빈(儀賓)으로 있으면서 친구로 지낸 오태주(吳泰周, 1668-1716)와 박태정(朴泰定, 1640-1688)의 제문이 그러하다. 오태주는 현종(顯宗)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혼인하여 해창위(海昌尉)

14) 余不言, 將使後人, 無以知公秉心行事之如此. 玆不敢以俚語, 文拙爲嫌云.

가 된 인물이고, 박태정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딸과 혼인하여 금창위(錦昌尉)가 된 인물이다. 특히 박태정과는 3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인물로, 그 제문이 자못 애절하다.

소차는 1667년에 총관(摠管)을 사직하는 소나 1681년에 죽은 아들과 죽은 아내 숙정공주의 역사를 위해 휴가를 청하는 소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올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경종 즉위년[1720]에 홍현보(洪鉉輔, 1690-1720)가 임금이 승하하던 날 궁중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상소에 대해 변론을 하는 상소 등 다양한 소차가 실려 있다. 소차로 제시된 작품은 앞서 제시한 제목으로 대체한다.

▮ 참고문헌

鄭載崙,『公私見聞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鄭載崙,『東平尉遺稿』,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鄭載崙,『公私見聞錄』,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鄭載崙,『遣閒錄』,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